

환황해 유교문화교류와 지역 활성화



이상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충청지역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남의 주요 유학자 이름을 한 번 짚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목은 이색,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명재 윤증, 초려 이유태, 남당 한원진, 외암 이간, 추사 김정희,
담헌 홍대용, 전재 임헌희 등이 바로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유학자들이다



■ 충청유교와 지역활성화 가능성

이들은 ‘충청’이라는 지역색을 띤 학자들로 규정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사에서 파급력을 일으킨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그 위상을 평가받고 있다. 충청의 역사문화지형에서 이들 유학자들이 남겨놓은 문화는 각 집안에서 전승되고 있는 유물과 유적들, 그리고 지역사회 주요 공론의 공간이었던 향교나 서원과 같은 유행문화뿐만 아니라 충청지역의 문중과 유림들의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의 유교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위해 본격적으로 ‘충청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충청남도과 논산시는 충청유교를 연구하고 역사문화자료를 집대성하며 방문자들에게 유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충청유교문화원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충청유교 관련 현안 사업은 국가적으로 지역의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활용하여 균형 잡힌 지역문화를 육성해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조명 받지 못했던 충청유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함과 동시에 문화권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의 방향성을 만들어간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환황해’라는 충남의 지리적인 조건은 문화권개발사업이나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이 충청남도 지역 내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인접한 중국·일본·대만 등 정부 간의 인문교류와 관광까지 확대되어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로 부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01 충남유교문화권 개발 기본계획보고서
(충청남도, 2015년)
- 02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충청유교의 차별성에 대한 질문



필자는 충청남도와 함께 2015년도에 충남의 유교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권개발사업 아이템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충청유학의 고유한 특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기존의 '경북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어떻게 차별성을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단순히 개발논리로 보았을 때, 이미 영남지역에서 특성화하고 있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충청권에 진행하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복투자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질문이었다.

필자는 먼저, 역사적으로 충청유교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충청유교의 시작은 백제 시기 이미 중국 수·당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백제의 왕인 박사는 유교 경전인 논어를 일본에 전파하면서 유교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고려 말에는 보령 남포 출신의 백이정에 의해서 성리학이 체계적으로 수용되었고, 서천의 가정 이곡과 목은 이색 부자 등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사상사적으로 조선시대 충청유교의 가장 큰 특징은 영남 유학을 대표하는 퇴계와 쌍벽을 이루는 율곡의 기호학

통이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등을 통해서 전수되고 꽃을 피웠다는 점이다.

충청의 유학자들은 임진왜란 이후 문란한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예학(禮學)을 발전시켰고, 상대적으로 영남의 사림 선비들과 달리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인간과 이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담론인 호락논쟁이 지성사적으로 이루어졌던 무대가 바로 충남이기도 하다. 추사 김정희, 담헌 홍대용과 같은 조선 후기 유학자들은 이와 같은 충청유학의 토대에서 자양분을 흡수하고 예술적으로, 또한 실용적으로 유학을 발전시킨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03 사계 김장생 초상



04 김장생이 쓴 가례집람(家禮集覽)

충청의 역사에서 '유교'는 거대담론으로 환원되는 단일한 '사상'이 아니라, 충청인의 역사 문화적인 특징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청유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실은 '충청유교'라는 용어가 개념적으로 정의된 적은 없지만 충청권의 역사와 지역성을 담고 있는 유교 문화의 총체를 지시하고 있는 용어로 받아들인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일반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과거의 역사문화와 깊은 연관 속에서 오늘날 그 문화자원을 관광개발과 연계시켜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발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이 그렇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과 같은 캐치프레이즈는 지역정부의 마케팅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일반인의 인식 속에 '진정성(authenticity)'을 갖춘 과거 유교문화가 영남에만 존재한다는 편견을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충청유교 문화권개발사업이 역사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 지역문화로 '충청유교'를 바라봄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경북유교문화권과 달리 충청유교문화권에서 '환황해' 지역이라는 차별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충청남도 내포지역은 고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도, 가까이 중국 문화가 들어오고 또, 우리의 문화가 나가는 중요한 교류의 창구였다. 충청의 황해가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불교, 유교문화

뿐만 아니라 서구의 천주교에 이르기까지 문명의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점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환황해'라는 지리적 조건이 만들어낸 포용성을 조명한 '문명화해센터' 조성사업, '문명과의 화해' 국제포럼 개최 등이 제시된 바 있다. '환황해 유교문화교류'도 그러한 충남의 지리 문화적 특성에서 출발한다.

■ '환황해 유교문화교류'의 시작, 충남-산동 간 교류를 위한 준비

필자가 속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2016년도에 정책과제로 '충남-산동 유교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과제는 전략적으로 충청유교 관련 문화권개발사업과 충청유교문화원 조성 등 도정 현안을 수행하는데 사전 국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과 더 나아가 향후 국제교류를 통해서 지역활성화 차원까지 연계하고자 기획되었다.

필자와 유병덕 연구원이 공동 과제를 수행하면서 산동에 주목한 점은 첫째, 산동성이 유교의 본향으로 공자와 맹자의 터전이었고 관련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중국사회에서 산동성 지역의 유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둘째, 산동성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 지역이고 충청남도와는 1995년부터 오랫동안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교류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충남의 대산항과 산동의 용안항 간의 국제카페리가 개통된다는 측면에서 주목하였다.

충청남도와 산동성 간의 교류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공식적으로 유교문화교류라는 관점에서 상호교류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 일단, 우

리 연구진은 산동성과의 유교문화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기관과의 교류 사례를 검토하였다. 주로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국립안동대학교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산동성과의 유교 관련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 기관과의 교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동대학교에서 20년간 교류를 주도하였던 공자학원 이윤화 원장과 국학진흥원 국학연구팀 박정환 팀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05 세계유학대회(산동성 중국공자연구원 주최)



06 한중 유교 인문 교류 컨퍼런스(안동 공자학원 주최)

면담을 통해서 연구진은 안동이 20년간 산동성 기관들과 유교 관련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 연구와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상호간 교류가 후속세대로 전승되면서 교류의 폭을 넓혀왔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충청남도의 산동성과의 유교교류는 분명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계망 즉, “관씨(關係)”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필자는 중국에서 2년간 중국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에게 “관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고 있다. 중국인에게

“관씨”는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인간 관계망을 의미하며, 한번 맺은 긍정적인 관계가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재 중국사회 내에서 “관씨”가 부정부패의 요인이 된다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수단으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결부시키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우리 연구진은 산동성 유교 관련 연구기관과의 장기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국무원 직속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을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16년 현재 4,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대규모 연

구조적으로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로 잘 알려져 있는 기관이다. 다행히 필자가 과거 국제학술회의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던 인류학 전공 정샤오슝(鄭少雄) 박사가 사회과학원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우리 연구과제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그는 흔쾌히 공동연구를 수락해 주었다.

■ 중국 산둥성 유교 관련 기관 방문과 본격적인 교류논의

8월 중순 무더위가 한창일 때 정샤오슝 연구위원과 우리 연구진은 산둥 유교관련 기관 방문을 추진하였다.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향후 함께 교류할 파트너를 정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방문 대상기관으로 산둥대학교 유학교등연구원, 중국공자연구원, 산둥성사회과학원 국제유교연구교류센터, 산둥성 박물관, 육예성을 정하였다. 산둥대학교 유학교등연구원, 중국공자연구원, 산둥성사회과학원 국제유교연구교류센터는 중국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유학관련 연구기관이고, 산둥성 박물관은 산둥성 최대의 종합박물관으로 유학관련 유물을 포함 약 27만 점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다. 육예성의 경우 공자의 육예(六藝)를 모티브로 유학을 대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테마파크라 할 수 있다.

공식적인 방문 일정을 잡기 위해서 중국사회과학원 정샤오슝 박사는 지난해 6월부터 이들 기관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첫 방문은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역사문화연구원이 위촉한 정샤오슝 박사에게 공식일정 조율을 부탁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위상이 산둥성과 같은 지방단위에는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연구기관이 중앙 기관의 협조 하에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교적 순조롭게 각 기관의 공식 일정이 확정되었고, 8월 16일 인천에서 제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각 기관 방문 공식일정은 좌담회 형식으로 우리 연구진이 충청남도 및 기관 소개와 함께 충청유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30분간 진행하고 상호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미리 중국어로 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긴 하였지만 우리 연구진이 중국 기관과 공식적인 회의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간 이루어진 각 기관 방문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각 기관 방문을 통해 대부분의 기관들로부터 상호 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서 가벼운 마음으로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방문 성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방문지인 산둥대학교 유학교등연구원에서는 산둥대 국제협력부에서 공식일정을 잡아서 부원장 2명과 교수 3명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였다. 유학교등연구원 측은 현재 남아있는 충남의 서원이나 향교와 같

은 문화유산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유학고등연구원이 그 산하에 문학·사학·철학·민속학·고전문헌 관련 개별 연구소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를 유교 분야에 한정짓지 말고 폭넓은 주제로 교류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진은 먼저,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환황해포럼’을 통해 성사되었다.

또, 곡부에 있는 중국공자연구원에서조차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공자연구원 측은 충남이 산둥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과거 문명교류의 역사부터 오랜 교류가 있었던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환황해 유교문화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연구진들과 공동으로 백제시기 왕인박사를 통한 논어 전파 연구, 한국의 공자 후예 연구 등 특화된 주제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 연구진과 공자연구원은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향후 ‘동아시아논어학연구센터’ 설립 가능성도 타진해 볼 것을 전망하였다. 그 밖에도 산둥성 박물관의 경우 우리 연구진이 제안한 유교관련 유물 전시교류에 동의하였다.



07 유학고등연구원 방문 회의장면
08 공자연구원 전경

■ 환황해 유교문화교류의 시작과 전망

우리 연구진은 산둥성 첫 방문을 통해서 중국 기관들의 유교관련 상호교류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귀국 후 우리 연구진은 기관에 산둥성 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그 중에서 먼저, 산동대학교 유학고등연구원 및 곡부에 있는 중국공자연구원과 국제학술교류

협정 체결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협정 이후에 후속 교류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였다.

후속조치로 먼저 진행된 것이 바로 산동대학교 유학고등연구원과 함께 ‘환황해포럼’ 세션을 구성하고 논의의 장을 만든 것이다. “아시아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문교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유학교등연구원 황위선(黃玉順) 부원장을 초청하였고, 중국에서 ‘생활유학’의 가치에 대한 담론을 정정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충남-산동 간의 유교문화 교류에 대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환황해포럼을 계기로 현장에서 충남 역사문화연구원과 유학교등연구원 간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09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식

10 <아시아 인문교류 네트워크 구축> 세션 장면

중국 공자연구원의 경우, 12월 중순 기관장 간 공식적인 회의일정을 잡아서 다시 산동성 곡부를 방문하였다. 두 번째 방문에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공자연구원 간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과 함께, 2017

년도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7년도에 ‘충청유교포럼’ 개최를 통해서 함께 교류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자연구원 측에서는 2017년도 9월에 있을 ‘세계유학대회’에 연구진이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필자가 회고하건대, 2016년은 중국 산동성과의 유교문화교류에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국제교류가 어려운 것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극복하고 서로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교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줄기의 방향을 잘 조절해서 ‘우리’와 ‘그들’이 함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한다.

필자는 충청남도과 산동성 간 유교문화교류가 다층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부터 연구기관,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향후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충청유교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를 확장시키고 동시에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중국인 관광 인프라 조성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환황해 유교문화교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고,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있는 목표지점을 바라보고 달리는 ‘마라톤’이 되어야 할 것이다.